

“개인정보 유출 대응력 높인다” ...

보건복지부 소속·산하 43개 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 건강·복지·사회보장 정보 등 민감정보 보호 위한 실전형 대응체계 점검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6월 16일(화) 「2026년 보건복지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 추진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총 4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도상 모의훈련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관별 초기 대응과 상황 전파, 사고 수습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는 물론 건강검진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복지수급정보 등 사회보장 관련 정보, 접속기록 및 사용자 계정정보 등 시스템 접속처리 정보까지 폭넓게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또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기관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대응 수준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본 훈련에 앞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 유출 예방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사전교육은 5월 26일과 6월 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원 및 중부지역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숙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역할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실무자들이 대응 절차를 직접 숙지·숙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건강·복지와 직결되는 민감정보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안전한 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대상기관

담당본부	보건복지정보 보호관리단	책임자	전연진 단 장	02-6360-5500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센터	담당자	김동조 센터장	02-6360-6581

연번	구분	기관명	연번	구분	기관명
1	본부	보건복지부	22	산하	대한적십자사
2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	23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소속	국립나주병원	24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4	소속	국립부곡병원	25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	소속	국립춘천병원	26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	소속	국립공주병원	27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7	소속	국립소록도병원	28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	소속	국립재활원	29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9	소속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30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0	소속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31	산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1	소속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32	산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2	소속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33	산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3	소속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 의약품심의위원회사무국	34	산하	한국한약진흥원
14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35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5	산하	국민연금공단	36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6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7	산하	한국공공조직은행
17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8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18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9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9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0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1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1	산하	국립암센터	42	기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43	산하	중앙사회서비스원